

돼지와 질병

(주)유티팜 동물임상평가센터 신성호 팀장

지난 구제역 사태를 뒤돌아 보면 동물 사육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전염병의 유입과 발생이라 할 수 있다. 소,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에서의 전염병은 신종플루처럼 때로는 인간에게 큰 위협요소가 되기도 하고 동물의 사육이 산업화 되고 대단위로 이루어 지면서 악성 전염병이 돌면 가축들이 대량으로 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물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중종실록』 1541 년 11 월 2 일자에는 돼지에서 전염병이 돌아 신하가 임금께 아뢰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돼지가 병들어 죽는 일이 걱정됩니다. 중대한 제물로 쓸 희생물이 이처럼 많이 죽으니, 이는 막대한 재앙이라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의 전염병은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돼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가축으로 군용 및 운송용 등 운송 용도로써의 말과 농경사회에서 소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풀을 먹는 소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과 같이 콩, 곡물 등을 주로 먹는 돼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환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야생의 돼지가 가축화 되었다는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나 보통 기원전 10,000 년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각광을 받은 것은 꽤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으로 사람과 먹거리가 비슷한 가축이기에 돼지가 편하되었던 흔적은 곳곳에 있다. 조선 순종 9 년에 빙허각 이씨가 쓴 여성생활 백과인 『규합총서』에서는 ‘돼지고기는 본디 힘줄이 없으니 몹시 차고 풍을 일으키며 회충에 해롭고 풍병이 있는 사람과 어린애는 많이 먹으면 못쓴다.’는 기록 등이 있고 조선시대 궁중음식 등의 식문화에서도 소고기처럼 발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경우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유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발상지가 사람이 살기에도 척박한 사막환경인 서아시아였기 때문에 돼지의 사육이 금지되었던 것이 종교와 결합하여 금기시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돼지는 다산성의 능력을 갖고 다른 가축에 비해 단백질의 축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인류의 증가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돼지가 가축화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돼지가 가축으로써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산업화가 된 것은 불과 반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사료의 역사와 같이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경제성이 강조되는 개량이 진행되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단 사육의 형태가 되면서 돼지의 성장 환경이 열악해 지다 보니 전쟁, 질병 등으로 제한된 지구 자원 하에서 인구수가 자연적으로 조절된다고 설파한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 바로 그때부터 산업화된 돼지와 질병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반 세기 전의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도 그 이름을 갖고 불리기에는 불과 20 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1987 년 미국에서 증상이 최초 보고가 되어 1991 년 PRRS 로 불리기 전까지는 돼지 미스터리 병(Swine mystery disease)라 불리어 졌었던 것이다.



사진-1. 제한된 공간에서의 2 층 돈방 구조



사진-2. 극복해야 할 양돈 질병

안타깝게도 질병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하지만 질병이 정복되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돼지 미스터리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질병의 연속이며 결국 양돈업은 질병, 질환과의 싸움을 통해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이 연구되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